

독감백신 무료 접종 중단... 혼란 불가피

도내 의료기관 공급 3만여명분 중 일부 상은 노출 의심 품질 문제 없어 접종 재개해도 도 자체 사업과 겹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발견돼 무료 예방 접종 사업이 제주도내 전 의료기관에서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을 기해 국가주도의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독감 예방접종 국가사업은 생후 6개월~18세와 62세 이상 고령층, 임신부 등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보건당국은 이 중 13~18세가 접종해야 할 일부 백신 물량이 운송 과정 중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냉장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문제의 독감 백신은 13~18세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접종될 예정이었지

만 유통 과정의 문제로 13~18세 뿐만 아니라 연령대에 상관 없이 모든 대상의 국가 접종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이런 결정은 접종 개시를 불과 몇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다만 국가 접종 대상자 중 생후 6개월~9세 미만으로 독감 백신을 생애 처음 맞거나 지난 7월 1일 이전 총 1회만 맞은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접종이 시작됐지만 이 백신은 13~18세 접종분과 공급 체계가 달라 문제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제주지역의 13~18세 국가 접종 대상자는 4만1498명으로, 이중 3만 7620명분(도스) 백신이 도내 의료기관 213곳에 공급됐다.

질병관리청은 13~18세 백신 중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것을 골라 앞으로 2주간 안전성 검증을 거쳐 접종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독감 예방 접종 국가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헛걸음을 했다. 제주 시내 A종합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2명이 독감 백신 접종 중단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찾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또 이날 오전부터 독감 백신 접종 문의 전화가 10여통 걸려왔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은 백신 물량은 220명분 정도로 이중 40개 정도가 13~18세 대상”이라며 “이미 공급 받은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안전성 검증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이 재개되도 문제는 남아

있었다. 재개 시점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예방접종 사업 시점과 겹칠 가능성이 커 한꺼번에 접종 희망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겨울을 앞두고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 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해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국가 대상에서 제외된 만 19세~만 61세 도민 42만8000명을 상대로 다음달 13일부터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한다.

도 관계자는 “이미 다음달 13일부터 자체 접종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병원 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금에 와서 접종 일정을 변경하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선호하는 대형병원으로 접종 희망자가 몰리지 않고 되도록 각자 살고 있는 곳의 동네의원, 보건소 등에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내려도 태평?... 제주도, 비상회의·현장점검 없었다

환경부 평가서 전국 최하위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를 포함한 서울 등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올해 제주의 성적은 11위로 꼴찌인 세종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2~4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강원·대구와 공동 14위에서 올해 순위는 올라섰지만 평가 대상이 줄면서 여전히 최하위권 탈출은 실패했다.

제주는 부산·경기·강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의 개최 실

적 또는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반면 이번 종합평가에서 서울, 전북, 충남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은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합동점검하는 등 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올 겨울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백근기자 haru@ihalla.com

수능 제주 응시자 6554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도내 수험생 6554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3~18일까지 도교육청과 도내 고등학교 등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로 재학생 4979명, 졸업생 1403명, 검정고시합격자 172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전년도 접수 인원 7070명과 비교해 볼 때 516명이 감소한 것으로, 재학생이 590명이 줄어든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는 각각 51명, 23명이 증가했다.

수능원서 접수 인원이 줄어든 것은 고3 학생 수가 작년 6930명에서 올해 6072명으로 858명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진선희기자



추석 앞두고 붐비는 오일장 22일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열린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 오랜만에 많은 인파가 찾아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 제때 못받는 외국인근로자들 ‘속앓이’

상당 결과 관련 유형 최다 출납국·의료·산업제해 등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각종 생활불편,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해 제주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통·번역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체불에 대한 의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 들어 8월 말 기준 237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유형은 임금체불이 300건으

로 가장 많고 사업장 변경 270건, 출·입국 관련 171건, 의료 48건, 산업제해 25건, 폭행 24건 등이 그 뒤를 차례로 따르고 있다. 기타 사항으로는 교육, 일상생활 고충, 통·번역 등이 있다.

임금체불 등 상담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는 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12-1141)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 대표번호(1522-3134)로도 가능하다.

상담자의 국적을 보면 중국이 982명으로 가장 많고, 네팔 406명, 베트남 259명, 필리핀 205명, 스리랑카 107명, 에티오피아 87명 등의 순이다.

센터는 기존 4개국(영어,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에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3개국을 포함해 모두 7개국에 대한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근기자

무면허 사고 내 출항량... 경찰 20대 검거

운전면허 없이 빌린 차량을 몰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교차로에서 무면허로 K3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K3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과 SUV 동승자 1명 등 3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탑승자 5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K3 차량은 SUV로부터 150m나 떨어진 지점까지 밀려나 있었으며, K3 차량은 엔진룸 대부분이 파손돼 도로 인근 밭으로 튕겨 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귀포시내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동승자들과 서귀포 시내에서 술자리를 한 뒤 남원 방향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음주 여부를 확인 중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무단이탈 도운 일당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씨와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에 가서 일

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D(48)씨를 자신들이 일하는 선박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는 등 무단 이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에 성공하면 D씨로부터 45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질 계획까지 세웠지만 경찰에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상민기자

감골모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장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거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모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리엄.

·카라향 1, 4년생	·궁천변이 1, 2년생
·유라실생 2,3,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농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그랜드보청기

추석하기위해 1대1대드림행사!

◎ 전액보험공판 제품 서류 업무 마팅 혜택입니다. ◎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삼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보청기 가격의 기쁨을 얻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430만~150만! 860만~270만!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정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일) 祚(조)

누수방지 가식, 청진가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 064.742.6234
☎ 010.7599.6234